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가 해군, 해경과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 조승환 해수부 장관,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정화행사 참석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6(금) 15시 부산 다대포해수욕장과 인근 무인 도서에서 개최된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정화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핵심기관인 해수부, 해군, 해경이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공동개최하였다.

행사에는 해수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이상식 해군작전사 부사령관을 비롯하여 사하구청, 해양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민간단체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동쪽 해변과 도요등(무인 도서) 일대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세 기관 모두 해양쓰레기와 군사보호구역 침적쓰레기 수거를 해왔으나, 이러한 활동들이 각 기관별로 추진되다 보니 정화지역이 한정되고 파급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올해부터는 해양쓰레기 정화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도서 지역 등 사각지대도 민간에서 희망하는 경우 수거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증함에 따라 주요 해안가와 사각지대에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양쓰레기 상시수거와 처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과의 협업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 발생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정화행사에 앞서 부산 사하구 아미산 전망대에서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 관 해양보전비과	책임자	과 장	류선행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1)

